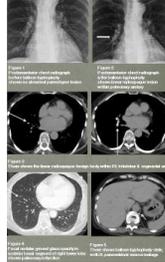


풍선척추후만성형술(balloon kyphoplasty) 후 발생한 폐경색을 동반한 시멘트 폐색전증 1예

부산성모병원

*하병길, 권용섭, 이순일, 김동현, 김봉건, 박중화

서론: 풍선척추후만성형술은 시멘트가 액상 상태로 척추로 주입될 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경피적척추성형술에 비해 주위조직으로 시멘트 유출을 감소시켜 폐색전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증례:** 54세 여자환자가 4일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및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과거력은 없었고 4년전 심부전 및 심방세동 진단 후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내원 9일전 INR 상승으로 warfarin 5 mg 3일간 중단 후 재복용한 것 이외에 약물변동은 없었다. 환자는 2개월 전 12번 흉추 압박골절로 풍선척추후만성형술을 받았다. 내원 시 생체징후나 흉부 청진 시 심잡음, 전폐야의 수포음이나 천명음은 청진되지 않았고 체중 변화도 없었다. warfarin 5 mg 복용 중임에도 INR 0.98로 감소된 것외에는 혈액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심전도상 분당 94회의 심방세동, 심초음파 상 좌심실 구출율 38%로 2개월전과 비교시 5%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상 풍선척추후만성형술 전과 비교 시 우측 폐문 주위 선상의 고음영이 관찰되었다. 컴퓨터흉부단층촬영상 우측 폐엽간동맥 및 구역동맥내에 시멘트 색전과 우하엽 앞바닥구역내 폐경색이 관찰되었으며 12번 흉추 주위 정맥내 시멘트 유출 소견이 보였다. 시멘트 폐색전증에 의한 폐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nadroparin 4800 IU, warfarin 7 mg으로 증량하여 INR 2-3을 목표로 투약하였고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결론:** 경피적척추성형술 시 폐색전증의 발병율은 1-4.6%로 보고되며 풍선척추후만성형술 시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보고되었으나 위 증례에서 보듯 시술 후 단순흉부방사선 추적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 컴퓨터흉부단층촬영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도관 색전술로 치료한 골반울혈증후군 1예

중앙대학교병원 내과¹, 흉부외과²

*현성협¹, 최주원², 안지현¹

저자들은 경도관 색전술로 치료한 골반울혈증후군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3세 여성이 5년 전부터 지속된 좌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증상은 생리와 무관하였고 부인과 진찰 및 검사에서 좌측 난소에 3 cm 크기의 낭종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복부 전산단층촬영에서 좌측 원위부 난소정맥에 정맥류와 혈전증이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좌측 신장정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조영제가 난소정맥으로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다시 좌측 신장정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조영제가 난소정맥으로 더 이상 역류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환자의 시술 전 통증은 Visual Analog Scale (VAS) 6/10이었으나 경도관 색전술 시행 후 2/10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다. 골반울혈증후군(pelvic congestion syndrome)은 만성 골반통의 원인으로 부전성 난소정맥(incompetent ovarian vein)의 역류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난소정맥 부전증은 여성의 약 10%에서 나타나며, 이 가운데 60%에서 정맥울혈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에서 골반울혈증후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